

회원사 소식

광명식품

미 대학과 산학협동

광명식품(대표 李弼連)은 그동안 진행돼 왔던 수입육 임가공에서 포장가공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동사는 포장육 생산의 활성화를 위해 92년 중 미국 링컨주 소재 네브라스카대학과 산학협동 차원에서 긴밀한 유대를 통해 생산 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남부햄

일부 인사 이동

남부햄(대표 鄭永燮)은 10월 24일 일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우상 공장생산관리 담당이사→본사 영업담당이사 ▲이상진 관리과장→영업과장 ▲방성국영업과장→강북지점장 ▲김병희(신규)→품질관리실장

노사화합 체육대회

남부햄은 노사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를 10월 27일 가졌다. 송탄공단내 공설운동장에서 가진 동체육대회는 본사와 공장, 농장, 전국 지점의 전 직원 3백50여명이 참가, 달리기, 축구, 농구, 배구와 장기자랑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

노사간 화합의 장을 펼쳤다.

대리점장 단합대회

남부햄은 지난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온양관광호텔에서 전국 대리점장 단합대회를 개최.

權泰敬상무 주재로 개최된 동대회에서 權상무는 시장활성화에 앞장 서 준 대리점장들에게 감사표하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국민 건강 차원에서 양질의 제품을 공급키로 약속했다.

대경햄

상호변경, 도약다짐

대경식품(대표 劉浩植)은 7월 13일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함과 동시에 상호를 (주)대경햄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동사는 「더 좋은 원료,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기술로 최고급의 제품만을 고집하며 창사이래 꾸준한 기술개발 및 기업체와의 공동 개발을 통한 40여 종의 독특한 상품들을 개발, 공급, 품질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바 앞으로 신용과 성실을 바탕으로 국민식생활 개선과 건강사회 구현에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두성식품 인수

대경햄은 기존 2차 가공사인 두성식품을 10월 1일 인수하므로써

제품의 다양화는 물론 생산능력을 배가시키게 되었다.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53-5에 소재한 두성식품은 동사가 인수 후, 대경식품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앞으로 대경햄 의왕공장으로 확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동사가 인수한 동 공장은 전평 1백 60평의 2층 현대식 건물로 월 생산능력은 1백 50톤이며 소시지, 훈제품, 기타 2차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전화 : (0343)58-9256~7
FAX : (0343)52-9997

서울사무소 개설

대경햄은 서울사무소(소장 황성수과장)를 개설, 공장 인수에 따른 생산제품의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1월 1일 개설한 서울 사무소의 주소와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다.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30 (용호빌딩)
전화 : 564-3482, 563-3488

도투락

주식회사 도투락이 10월 1일 우리 협회에 가입했다. 동사는 일부 육제품류 및 면류, 과자류를 전문 생산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도투락유통(대표 金珍植)이 유통 판매를 전담하고 있다.

도투락유통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8, 전화 568-8022 FAX 563-7043, 도투락 본사(공장)은

경기도 평택군 수월암리 787
전화 (0333)62-3911~3,
FAX (0333)63-3913

동원산업

회원사로 가입

동원산업주식회사(대표 吳東彬)가 7월 1일자로 우리 협회에 가입했다. 동사는 지난 69년 4월 16일 설립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탈제모선식 참치연승선으로 조업을 개시한 바 있으며, 만두류, 돈까류, 튀김류 등 냉동식품과 참치통조림, 진공포장 오징어, 꽁치통조림, 맛김 등 수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동사의 계열사는 동원광학, 동원육영재단, 동원식품, 한신증권, 동일냉동식품, 해양개발연구회가 있으며, 90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 본사 : 서울 중구 중림동 335, 전화 : 331-3050~3
- 공장 : 경남 창원시 대원동 91-1, 전화 : (0551)82-8311~6
- 영업본부 :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7-10, 전화 5701-290~4

吳사장, 수산회부회장 선임

동원산업 吳東彬사장이 9월 29일 열린 한국 수산회 이사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한·소 합작회사 설립

동원산업이 소련과 민간차원에서의 어로활동을 위해 한·소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동원산업은 소련 최대의 수산회사인 「프리모브프롬(PRIMORRYB PROM)」 어업공단 및 「투르니프(TURNIF : 해양어족조사기관)」와 50대 50의 비율로 공동출자한 합작회사(ROSS KOR社)를 설립했다.

총 출자금 2백 50만 달러로 설립된 로스코르社는 한·소 경제협력과 함께 소련 수역내의 수산자원 및 해양자원의 개발과 상품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원 산업은 로스코르社를 통해 소련수역내에서는 어로활동 외에 최신 기술 및 자재와 장비지원, 제품의 국제시장으로의 판매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또한 소련측이 이에따른 각종 자원을 제공하여 ▲충분한 어획권 확보 ▲토지·자연자원 사용권 및 ▲장비 교통 통신 등의 임차지원을 하게 된다.

합작회사인 로스코르社는 소련 불라디보스토크에 본사를 두고 서울이나 부산에 지사를 설치, 본격 영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두송상사

상호변경, 최사장 취임

동남육가공은 상호를 7월 11일 주식회사 두송상사(斗松商社)로 변경했다. 지난 89년 수출입 전담사인 계열사 주식회사 두송을 설립한 동사는 상호 변경전인 5월

24일 李錫斗 사장은 회장으로 추대하고, 朴義植 전 나라통상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한편 동 사는 5월 22일 李渭衡 상무를 전무이사로 李忠福이사를 상무이사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해외 원료육 시장조사

두송상사 朴義植사장과 李渭衡전무는 10월 18일부터 중국 각 지역의 원료육 시장을 점검하고 10월 31일 귀국했다. 동 사는 앞으로 2차 가공 및 돈까스류 등 냉동식품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롯데햄·우유

월례교양강좌 실시

롯데햄·우유(대표 姜晉佑)는 지난 10월 29일 본사 강당에서 전사원을 대상으로 한 월례교양강좌가 있었다. 강좌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의식 배양을 주제로 한 유철종(직장 개발 연구소장)씨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는 웃음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 관계에 적응하자는 내용으로 전개되었으며 탁월한 언변과 표정은 청중을 압도하였다. 잠시나마 사우들이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제1회 충북 우수 직장

야구대회 우승

충북도내 우수직장야구팀리그 전(7개팀)에서 청주공장 야구팀이 우승.

김재현 감독의 손끝에서 나오는 싸인에 따라 선수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우승팀의 면모를 한껏 보여 주었다고.

우승에 자만하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야구 써클을 활성화해서 명랑한 직장 분위기와 동료간의 우애를 좀더 발전시켜 나아가서는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야구회원 뿐만 아닌 직장 동료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

미원

柳泳鶴사장 선임

미원 그룹은 10월 30일 미원사장에 柳泳鶴 한남화학사장을 전보했다. 한편 河容彩사장을 그룹 고문으로 추대했다.

회원사로 가입

주식회사 미원이 6월 20일 우리 협회에 가입했다. 63년 2월 16일 설립된 동 사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미료를 비롯 축육제품과 냉동식품인 고로케류, 범벅류, 계맛살을 생산하고 있다.

- 본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6-48, 전화: 234-1171~6
- 공장: 충남 천안시 두정동 59-1,

전화: (0417)522-2111

FAX: (0417)552-2114

• 냉식사업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29-8 전화: 849-1191(대)
FAX: 840-0802

조직 개편 단행

미원은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영업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홍보팀을 분리 운영키로 하는 한편, 윤석영 전무를 총괄 영업본부장으로 기용 발령했다.

柳泳鶴사장은 미원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영업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종전 마케팅부 소속 홍보팀을 분리, 홍보실로 독립시키기로 하고 金안기 기획담당이 사를 겸임 발령하는 등 조직인사를 단행했다.

한편 미원은 이번 인사에 이어 조직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방침아래 대폭적인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 사의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업본부장 윤석영 전무
- ▲마케팅실장 정영준 상무
- ▲영업관리실장 권종숙 이사
- ▲기획담당이사 겸 홍보실장 김안기 이사

「미원의 소리」 창간

미원은 사원들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미원의 소리」를 창간하였다. 이번에 미원이 새로 창간한 사내보 「미원의 소리」는 종전의 그룹사보에서 보다 비판기능과 교육기능은 물론 사원들의 창의적인 의견 등을 수렴, 기업운영에 반영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미원의 소리」는 사원들의 의견을 아무런 여과없이 받아 들이기 위해 창간케 된 것이라고.

제품생산 다양화

미원은 제품다양화 방침에 따라 5월 29일 충남 천안 제1공단 내에 대지 2천평, 건평 1천평규모의 냉동식품공장을 50억원을 들여 건설하고, 하루 6.5톤의 각종 냉동식품과 1.7톤의 맛살을 생산해 판매에 착수했다.

또한 이제까지의 냉동식품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완벽한 위생처리시설을 갖추고, 제반 생산을 자동화했으며 신선도와 맛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日本의 냉동식품 전문 생산업체인 산마르코社와 기술제휴를 맺는 한편, 1차년도인 금년도에 80억원의 매출목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판매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그런데 미원의 생산 냉동식품은 만두를 비롯 돈까스, 햄버그, 고로케, 핫도그 등이며 계맛살도 생산.

삼포식품

회원사로 가입

주식회사 삼포식품(대표 文平植)이 91년 6월 20일 우리 협회에 가입했다. 지난 87년 1월1일 설립된 동 사는 경기도 파주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만두류 전문 생산 업체이다.

•본사, 공장 :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법원리 520-2
전화 : (0348)958-0372
•서울사무소 : 은평구 녹번동
83-42 전화 : 357-5141~5
FAX : 357-5413

선진

단합 등반대회

선진(대표 李元福)육가공 사업부 친목회 선가회(회장 성두현)는 11월 3일 대둔산에서 등반대회를 갖고 사우들의 단합을 다졌다.

서울사무소 이전

선진 서울사무소가 10월 30일자로 강동구 둔촌동 517-3 전화 471-9315-7(FAX 471-1343)으로 이전, 변경되었다.

안성축산

안성공장 신설, 고유 제품생산

안성축산(대표 宋根洪)은 12월 초 오산공장을 안성군 대덕으로 이전, 신설하고 양념류 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설된 공장은 대지 1천여평에 건평 1백

50평으로 냉장 냉동시설을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기존 양념류 생산타입을 완전 탈피, 인공 향을 일체 넣지 않고 순수 우리 농산물인 마늘, 고추, 생강 등을 이용하므로써 제품 고유의 맛을 한층 높인 게 특징으로 소비자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새 주소는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신영리 496-3번지,
전화 (0334)676-1133~4
FAX. (0334)676-1135

영필농산

李사장, 해외시장 둘러봐

영필농산 李弼福사장은 지난 8월 14일부터 보름동안 미국, 카나다, 호주, 일본의 육가공 공장, 축산목장, 도축장 등을 둘러보고 8월 28일 귀국했다. 李사장은 앞으로 각 국의 현황을 동 사에 접목, 육가공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제일농장

대표이사 변경

미원그룹은 曹成煥(56) 전 한남화학(주) 전무이사를 제일농장 대표이사로 발령했다. 5월 31일자로 부임한 曹대표이사는 조선대대

학원을 나와 서울미원과 미원에 근무한 바 있다. 한편 동 사는 5월 1일자로 金安圭 전 펭귄이사를 이사로 영입한 바 있다.

한편 金仁植 전 대표이사는 개인 사업을 위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육통조림 생산 개시

제일농장은 9월부터 돼지고기 통조림 생산을 시작했다. 이로써 국내 돈육통조림 생산업체는 6개 사로 늘게 되었다.

한편 동 사는 육가공제품 생산 능력을 일 10여 톤으로 늘렸으며, 앞으로 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화사업 본격 착수

제일농장이 계열화업체로 선정되어 경기도의 세부 사업추진 계획 심사에 통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계열화업체로 선정된 제일농장의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추진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자금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의 세부 사업추진계획서 확인과 아울러 축협중앙회의 이들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심사에 통과한 제일농장·영육 농장·대연식품등 3개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25억원의 계열화추진 자금이 지원되며 우선적으로 총사업비의 10%인 2억 5천만원을 차 수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자금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집행된

다.

계열화 추진자금은 축산진흥기금에서 조달되며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상환의 연리 8%이다.

제일농장은 지원자금을 종돈장 보완에 6억원, 냉동창고 설비에 2억원, 가공공장 증설 7억 5천만원, 유통시설 정비에 7억원, 운영 자금으로 2억 5천만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CIP작업 마무리

제일농장의 CIP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이번 CIP의 기본은 산과들의 풍요로움과 태양의 강렬함을 조화 시킨 것으로 폐적하고 신선한 식탁을 원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실현해 나가는 제일농장의 의지를 GREEN 이미지, 즉 CLEAN FRESH NETURAL로 상징화 한 것이다.

개발기술 연수

제일농장 金安圭이사는 11월 19일부터 일본 육가공시장을 둘러보고 23일 귀국했다. 金이사는 11월 18일 일본에 육가공 기술연수를 떠난 개발부 직원 4명의 현지 활동과 연수에 따른 지원문제 등을 협의하고 귀국했다고.

제일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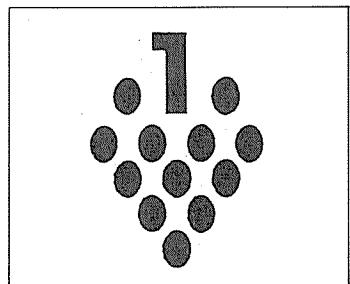
창립 기념식 가져

제일제당(대표 金正淳)의 회사 창립 38주년 기념식이 11월 5일 인천2공장 구내 운동장에서 김정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장기 근속자, 장기 근속 대리점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순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룹의 제2창업 선언 이후 지금 까지 기초를 닦고 여건을 만들어 왔다면 우리는 이제 매출 1조 원 달성을 기념비적 사실을 새로운 도약의 분수령으로 삼아 실질적인 제2창업을 새롭게 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사 뒤에는 장기 근속 사원 125명과 장기 근속 대리점 점주 25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새 심벌마크 확정



제일제당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1조원 매출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벌마크를 제정했다.

이번에 최종 결재된 심벌마크는 포도송이 모양을 넣어 열심히 일해서 거둔 열매를 상징하고 있으며 「1」이란 숫자는 업계의 선두 자리를 뜻하고 있다.

또한 12개의 「•」은 1조원을 뜻하고 V자형태의 「•」은 「Victory」의 첫 글자로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

한편 제일제당은 심벌마크제정식을 매출 1조원 달성을 기념식 때 함께 가질 예정이다.

DLG 세계 평가대회서 대상차지

제일제당(대표 金正淳)에서 생산한 육가공품 4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독일농협(DLG) 품질평가에서 대상 및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동사가 수상한 육가공제품은 가열소시지로 비어싱켄(Bierschinken) 리오너르(Lyoner)가 대상을, 플라이스카세(Fleischkase) 모타델라(Mortadella)는 은상을 받았다.

이 제품들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때 프랑크엔홀더그룹의 기술지도로 생산, 독일선수촌은 물론 독일정부가 주관하는 German House에 공급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89년 9월부터 렐리카 제품류로 판매되었다.

DLG상은 독일농업협동조합의 주최로 매년 세계 각국의 식품회사들이 11개 분야에 걸쳐 출품한 것에 대해 품질을 비교평가한 후 각 분야에 걸쳐 대상 은상을 수여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상품개발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제정되었다.

전화번호 DID방식 변경

■ FAX : 710-5100~5(신규)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후	변경전
통화방식	D I D	대표전화
전화번호	안내 : 710-5114 직통 : 710-5000	715-1114 ~8

제일제당은 10월 27일 0시를 기해 전화번호를 DID(외부에서 교환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각 부서로 통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델리햄

상호변경

코델리햄은 기존 코델리를 「코델리햄」으로 5월 7일 상호를 변경, 육가공 전문 생산업체로 이미 사업했다.

한편 동사는 10월 1일자로 白雄基이사를 대표 상무이사로 승진 시킴과 동시에 앞으로 회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냉장

노량진에 고기 전문점 등장

한국냉장(대표 辛建鎬)이 11월 8일 현대식 육류 판매시설을 갖춘 고기전문판매장을 노량진 수산시장 내에 개설했다.

이번에 개장된 한냉 고기 스토

어는 국내 최초의 육류 전문 판매장으로 각종 육류제품은 물론 육가공제품, 유가공제품, 육류 조리용 양념류를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동안 육류소매기구들의 영세성과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으로 소비기호의 고급화와 다양화추세에 부응치 못했던 점에 미루어 이번 한냉 고기스토어는 육류 소매기구의 선진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일후드

회원사로 가입

한일후드주식회사(대표 郭龍培)가 7월 10일 우리 협회에 가입했다. 87년 5월 19일 설립된 동사는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해 있으며, 만두 등 가공식품류와 면류를 생산하고 있다.

- 본사, 공장 : 충북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582-3. 전화(0475) 33-2570 FAX(0475) 32-0992
- 서울사무소 : 용산구 청파동 3가 128-5 전화 711-4501-4

한중식품

회원사로 가입

주식회사 한중식품(대표 鄭秀

子)이 7월 1일 우리 협회에 가입 했다. 83년 9월 1일 설립된 동사는 경기도 용인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종 생산 품목으로는 돈까스 기타 냉동식품류가 있다.

- 본사, 공장 :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 308, 전화(033) 32-3215
- 서울사무소 : 서초구 반포동 265-7, 전화 532-5002 FAX) 532-50003

해태제과

회원사로 가입

해태제과주식회사(대표 李瀬培)가 7월 16일 우리 협회에 가입 했다. 지난 45년 10월 3일 설립된 동사는 서울 양평동에 소재해 있으며, 제과류를 비롯 만두류, 돈까스류, 튀김류 등 냉동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 본사, 공장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68, 전화 : 677-7766, FAX) 633-5149

임직원 대폭 인사 단행

해태제과는 10월 16일 이용배 대표이사 사장을 영업본부장으로 겸임 발령하고, 박인배총괄부사장을 관리본부장으로 보임변경하는 등 임직원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 ◇ 보임병경
- ▲ 관리본부장(부사장) 박인배
- ▲ 생산본부장(전무이사) 유경렬

▲ 공장이전추진본부장(전무이사) 이상찬 ▲ 관리담당(상무이사) 허진호 ▲ 영등포공장장(이사) 이용길 ▲ 안양공장장(이사대우) 이용길 ▲ TMC담당(이사대우) 이태호
◇ 선임
◇ ▲ 재경담당이사대우 이은영
▲ 유통1담당이사대우 박성진
◇ 겸임 및 해임
▲ 대표이사장 이용배(영업본부장 겸임) ▲ 총괄부사장 박인배(총괄부사장해임) ▲ 생산본부 전무이사 이상찬(TMC사업본부장 경임 해임) ▲ 식품연구소 상무이사 이규순(연구담당상무겸임해임) ▲ 영등포공장 이사대우 장동현(생산기획실장 겸직해임) ▲ 개발담당이사대우 이태호(식품연구실장겸직해임)

◇ 파견

▲ 재경담당 상무이사 홍부선(종합조합조정실상무이사) ▲ 상임감사이사 이건수(해태식품이사).

◇ 보임

▲ 직매소 C/T기동 타격 팀장 박성근 ▲ 판매유통라인 업무표준화팀장 김재광 ▲ 조리식품 업소개척팀장 유철곤 ▲ 안양공장 생산현장 업무개선팀장 김성우 ▲ 광주공장 최영환 ▲ 영등포공장 이석재 ▲ 외주업체 경영지도1팀장 박윤부 ▲ 2팀장 주창백 ▲ 껌개발담당팀장 장덕호 ▲ 냉동개발담당팀장 이상호

스낵 전문 합작사 설립

해태제과(대표 이용배)는 일본 가루비식품(주)와 50대50의 비율로 자본금 20억원을 출자해 스낵전문회사인 해태-가루비(주)를

설립했다.

해태제과는 스낵제품의 제조 및 도매와 이에 부수되는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해태-가루비(주)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金永權(김영권) 생산담당이사를 선임, 발령했다.

이같은 외국 과자류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제조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태는 40년이상 축적된 스낵제조 노하우로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로 까지 수출하고 있는 가루비(주)와 손잡고 제조기술 향상을 통한 수입제품 대체는 물론 국내 스낵산업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